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김 영 숙* · 정 복 레**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역할은 성별에 따라 문화 내에서 인정되고 기대되는 행동양식, 태도, 인성특성을 포함하는 행동기준이다.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성(sex)보다는 사회 문화적 측면과 더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적 풍토에 적합한 성역할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인 성역할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역할 정체감은 성역할 사회화에 의해 특정한 성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게 되는 가치관, 태도, 동기, 행동특성 등을 내면화 시킨 정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오랫동안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각각의 행동양식과 태도, 가치가 이분화 되어 하나의 성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틀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행동 및 태도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은 현대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남녀의 성 역할 또한 변화하였다(Kim, J. H., 2005). 이러한 변화에 의해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남성이나 여성의 성 역할만으로는 적응하기 어렵게 되어 한 개인에게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이 모두 통합된 양성 유형을 요구하게 되었다(Kim, E. M., 2003). 양성평등은 남녀공존이라는 화해적 의미를 함축하며, 남녀

공존, 여성소외해소, 남성역차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Jang, 2002).

교육인적자원부가 1999년에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은 양성 평등적 교육과정을 기초로 조화로운 민주주의사회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이 강조되는 형태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의 모든 영역에서조차도 고정 관념화된 성역할 특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Cho, 2003).

생활 속에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타고난 개성과 능력의 발휘를 억제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의 기회가 제한 당하고, 사회 국가적으로는 유능한 인적 자원이 사장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고정 관념적 사고방식과 성 편견이 그대로 답습됨으로써, 현재의 성 불평등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성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Song, 2005). 그러므로 성역할 정체감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성역할 및 양성평등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이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 울산 정보통신 고등학교 보건교사(교신저자 Email: kys-777@hanmail.net).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투고일: 2007년 2월 26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19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Kim, E. J.(2003)과 Kim, M. H.(2005)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하였으며, Kim, J. S.(200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 Cho(2003)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하였고, Sim(2005)과 Lee(2005)는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여 성별, 학교 급, 학교유형 등이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중, 고생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학교 급, 학교형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것은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여 학교 교육에 이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을 파악한다.
- 2) 남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한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성역할 정체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과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Kim, J. H., 2005), 본 연구에서는 Kim, J. H.(2005)의 성역할 정체감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양성평등의식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Kim, Lee, & Kim, 2002),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02)이 개발한 청소년

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지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U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중 각 구별 남녀 중학교 1개교, 남녀공학 중학교 1개교와 남, 녀 고등학교 1개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6개교를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2006년 6월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2학년의 한 학급을 정했다. 연구자가 해당 학급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자료 24부를 제외한 총 376매의 설문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14문항, 성역할 정체감 50문항, 양성평등의식 60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이다.

1) 성역할 정체감 도구

성역할 정체감의 측정은 Kim, J. H.(2005)의 척도에서 미분화된 성 10문항을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양성성 10문항의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개별항목의 점수가 많을수록 해당 성역할의 성향이 높다. 본 연구에서 전체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2이었고 하위구조 신뢰도 Cronbach's α 는 남성성 척도 .871, 여성성 척도 .812, 양성성 척도 .720이었다.

2) 양성평등의식 도구

양성평등의식은 Kim 등(2002)이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정생활 영역 15문항, 학교생활 영역 15문항, 직업생활 영역 15문항, 사회문화생활 영역 15문항의 총 60문항의 4개의 하위구조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러하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개발 당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8이었으며, 하위구조 신뢰도는 가정생활 .883,

학교생활 .826, 직업생활 .877, 사회생활은 .82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1이었고, 하위구조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가정생활 .873, 학교생활 .786, 직업생활 .839, 사회생활은 .818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able 1> Genaral Characteristics

(N=376)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Boy(n=160) n(%)	Girl(n=216) n(%)
School level	Middle school	87(54.4)	103(47.7)
	High school	73(45.6)	113(52.3)
School types	Boys' & girls' school	45(28.1)	58(26.9)
	Coed school	115(71.9)	158(73.1)
Religion	Nothing	65(40.6)	86(39.8)
	Have	95(59.4)	130(60.2)
Character	Extrovert	82(51.3)	112(51.9)
	Introvert	78(48.7)	104(48.1)
Father's age(year)	<40	7(4.4)	7(3.2)
	40-49	140(87.5)	197(91.2)
	50<	13(8.1)	12(5.6)
Mother's age(year)	<40	37(23.1)	50(23.1)
	40-49	118(73.8)	163(75.5)
	50<	5(3.1)	3(1.4)
Father's job	Office worker	58(36.3)	86(39.8)
	Sales or service	30(18.8)	31(14.4)
	Production employee	53(33.1)	79(36.6)
	Others	19(11.9)	20(9.3)
Mother's job	Office worker	18(11.3)	25(11.6)
	Sales or service	31(19.4)	41(19.0)
	Production employee	5(3.1)	10(4.6)
	Others	106(66.3)	140(64.8)
Education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and below	4(2.5)	3(1.4)
	High school	83(51.9)	119(55.1)
	College and over	73(45.6)	94(43.5)
Education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and below	11(6.9)	6(2.8)
	High school	99(61.9)	141(65.3)
	College and over	50(31.3)	69(31.9)
Decision maker at home	Father	34(21.3)	36(16.7)
	Mother	14(8.8)	21(9.7)
	Couple agreement	97(60.6)	138(63.9)
	Others	15(9.4)	21(9.7)
Level of harmony	Much harmony	113(70.6)	159(73.6)
	Moderate	41(25.6)	49(22.7)
	Less harmony	6(3.8)	8(3.7)
Frequency of hugging from father (/day)	None	128(80.0)	154(71.3)
	More than 1 times	32(20.0)	62(28.7)
Frequency of hugging from mother (/day)	None	103(64.4)	121(56.0)
	More than 1 times	57(35.6)	95(44.0)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 평등의식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은 남학생 54.4%, 여학생 47.7%이었고, 고등학생은 남학생 45.6%, 여학생 52.3%이었다. 학교 형태별로는 남녀공학이 남학생 71.9%, 여학생 73.1%로 더 많았다. 종교를 가진 학생은 남학생 59.4%, 여학생 60.2%로 더 많았고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 51.3%, 여학생 51.9%로 더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40-49세가 남학생 87.5%, 여학생 91.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연령도 40-49세가 남학생 73.8%, 여학생 75.5%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남학생 36.3%, 여학생 39.8%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기타(전업주부)가 남학생 66.3%, 여학생 64.8%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남학생 51.9%, 여학생 55.1%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이 남학생 61.9%, 여학생 65.3%로 가장 많았다. 가족 중대사 결정은 부부가 합의하여 한다가 남학생 60.6%, 여학생 63.9%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이 화목하다가 남학생 70.6%, 여학생 73.6%로 더 많았다. 부모의 포옹 횟수는 아버지의 경우 남학생 80.0%, 여학생 71.3%, 어머니의 경우 남학생 64.4%, 여학생 56.0%로 하루에 한 번도 안아주시지 않는다가 더 많았다(Table 1).

2.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은 전체적으로 남학생 3.30점, 여학생 3.25점으로 남학생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Table 2).

<Table 2> Gender Role Identity by Gender (N=376)

Item	Boy		Girl		t	p
	M	SD	M	SD		
Masculinity	3.24	.55	3.15	.54	1.76	.08
Feminity	3.20	.54	3.19	.45	.33	.08
Androgyne	3.45	.58	3.41	.47	.91	.37
Total	3.30	.47	3.25	.39	1.23	.22

3. 남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남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은 전체적으로 남학생 2.86점, 여학생 3.29점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t=-12.70, p=.00$). 하위 영역별로는 가정생활($t=-11.48, p=.00$), 학교생활($t=-10.48, p=.00$), 사회생활($t=-10.78, p=.00$), 직업생활($t=-13.06, p=.00$)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이 유의한 차로 높았다(Table 3).

<Table 3> Gender Egalitarianism Consciousness by Gender (N=376)

Item	Boy		Girl		t	p
	M	SD	M	SD		
Home life	2.96	.37	3.42	.40	11.48	.00
School life	2.82	.33	3.18	.34	10.48	.00
Social life	2.78	.35	3.21	.41	10.78	.00
Occupational life	2.85	.36	3.33	.34	13.06	.00
Total	2.86	.31	3.29	.34	12.70	.00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은 고등학교($t=2.74, p=.00$), 남녀공학($t=-8.56, p=.00$), 종교가 없는 경우($t=2.67, p=.00$)에 남학생,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가 있었다. 어머니가 40세 미만인 경우($t=.02, p=.00$),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t=2.74, p=.01$)에 남학생,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가 있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t=2.53, p=.01$), 가족 중대사를 아버지가 결정하는 경우($t=3.60, p=.00$)에 남학생,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가 있었다.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학교 급($t=-3.19, p=.00$), 어머니의 포옹횟수($t=-2.28, p=.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은 종교유무($t=-2.24, p=.03$), 어머니의 직업($F=3.59, p=.02$), 아버지 학력($F=3.20, p=.04$), 어머니 학력($F=3.24, p=$

<Table 4> Genderl Role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76)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Boy	Girl	t	p
		M±SD	M±SD		
School level	Middle school	3.19± .47	3.21± .45	-.39	.70
	High school	3.43± .45	3.27± .34	2.74	.00
	t(p)	-3.19(.00)	-.93(.36)		
School types	Boys' & Girls' school	3.41± .46	3.27± .31	1.79	.76
	Coed School	3.26± .48	3.24± .42	-8.56	.00
	t(p)	-1.83(.07)	-.63(.53)		
Religion	Nothing	3.35± .43	3.17± .36	2.67	.00
	Have	3.27± .50	3.29± .41	-.40	.69
	t(p)				
Character	Extrovert	3.29± .51	3.24± .38	.91	.37
	Introvert	3.30± .43	3.25± .40	.82	.41
	t(p)	-.09(.93)	-.26(.80)		
Father's age(year)	<40	3.18± .41	3.14± .67	.14	.89
	40-49	3.30± .46	3.25± .38	1.10	.27
	50<	3.37± .63	3.24± .50	.57	.57
	F(p)	.38(.68)	.28(.75)		
Mother's age(year)	<40	3.21± .42	3.15± .34	.02	.00
	40-49	3.32± .49	3.26± .37	1.03	.26
	50<	3.47± .39	2.90± .39	1.99	.09
	F(p)	1.12(.33)	1.58(.21)		
Father's job	Office worker	3.29± .46	3.29± .39	-.01	.99
	Sales or service	3.38± .49	3.32± .43	.55	.58
	Production employee	3.33± .47	3.19± .38	1.76	.08
	Others	3.14± .49	3.16± .38	-.12	.09
	F(p)	1.09(.36)	1.47(.23)		
Mother's job	Office worker	3.31± .55	3.41± .49	-.63	.53
	Sales or service	3.16± .51	3.35± .42	-1.78	.08
	Production employee	3.47± .32	3.18± .36	1.54	.15
	Others	3.33± .45	3.19± .36	2.74	.01
	F(p)	1.31(.28)	3.59(.02)		
Education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and below	3.58±1.18	3.50± .33 a	.10	.92
	High school	3.27± .38	3.19± .37 b	1.49	.14
	College and over	3.32± .52	3.30± .41 ab	.16	.87
	F(p)	.92(.40)	3.20(.04)		
Education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and below	3.32± .65	3.36± .15 a	-.15	.89
	High school	3.33± .44	3.20± .40 b	2.53	.01
	College and over	3.23± .51	3.34± .37 a	-1.32	.19
	F(p)	.84(.44)	3.24(.04)		
Decision maker at home	Father	3.44± .40	3.11± .35	3.60	.00
	Mother	3.27± .22	3.28± .37	-.10	.92
	Couple agreement	3.27± .52	3.27± .39	-.02	.99
	Others	3.20± .48	3.25± .45	-.37	.71
	F(p)	1.40(.25)	1.58(.20)		
Level of harmony	Much harmony	3.34± .46	3.30± .38 a	.85	.40
	Moderate	3.18± .54	3.06± .39 b	1.24	.22
	Less harmony	3.32± .11	3.31± .46 a	.05	.96
	F(p)	1.67(.19)	7.28(.00)		
Frequency of hugging from father (/day)	None	3.29± .49	3.21± .40	1.54	.13
	more than 1 times	3.34± .40	3.34± .37	.07	.95
	t(p)	-.56(.58)	-2.19(.03)		

〈Table 4 Continued〉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Boy	Girl	t	p
		M±SD	M±SD		
Frequency of hugging from mother (/day)	None	3.24± .49	3.19± .41	.78	.44
	more than 1 times	3.41± .42	3.32± .35	1.55	.12
	t(p)	-2.28(.02)	-2.41(.02)		

Note. a, b: Duncan.

〈Table 5〉 Gender Egalitarian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Boy	Girl	t	p
		M±SD	M±SD		
School level	Middle school	2.85± .34	3.19± .37	-6.54	.00
	High school	2.86± .27	3.38± .28	-12.38	.00
	t(p)	-.15(.89)	-4.21(.00)		
School types	Boys' & girls' school	2.76± .28	3.40± .27	-11.86	.00
	Coed school	2.89± .32	3.25± .35	-8.56	.00
	t(p)	2.43(.02)	-3.12(.00)		
Religion	Nothing	2.86± .32	3.31± .35	-8.23	.00
	Have	2.85± .31	3.27± .34	-9.66	.00
	t(p)	.14(.89)	.87(.39)		
Character	Extrovert	2.86± .34	3.27± .32	-8.43	.00
	Introvert	2.85± .29	3.32± .35	-9.56	.00
	t(p)	.17(.86)	-1.17(.24)		
Father's age (year)	<40	2.93± .27	3.13± .26	-1.46	.17
	40-49	2.86± .31	3.29± .35	-11.87	.00
	50<	2.76± .37	3.31± .27	-4.24	.00
	F(p)	.78(.46)	.79(.46)		
Mother's age (year)	<40	2.91± .31	3.15± .34	-3.33	.00
	40-49	2.85± .31	3.33± .33	-12.46	.00
	50<	2.64± .32	3.38± .18	-3.55	.01
	F(p)	1.88(.16)	1.30(.27)		
Father's job	Office worker	2.82± .29	3.31± .34	-8.98	.00
	Sales or service	2.79± .29	3.24± .35	-5.47	.00
	Production employee	2.89± .30	3.26± .34	-6.22	.00
	Others	2.95± .39	3.40± .31	-4.04	.00
	F(p)	1.64(.18)	1.30(.27)		
Mother's job	Office worker	2.94± .29	3.33± .33	-4.07	.00
	Sales or service	2.91± .35	3.28± .29	-4.90	.00
	Production employee	2.80± .15	3.06± .39	-1.43	.17
	Others	2.83± .31	3.30± .35	-11.11	.00
	F(p)	1.08(.36)	1.68(.17)		
Education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and below	2.52± .44 a	3.60± .17 b	-3.97	.01
	High school	2.90± .31 b	3.24± .36 a	-6.88	.00
	College and over	2.82± .29 b	3.34± .30 ab	-11.29	.00
	F(p)	3.97(.02)	3.78(.02)		
Education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and below	2.85± .36	3.33± .30	-2.77	.01
	High School	2.88± .32	3.27± .36	-8.67	.00
	College and over	2.81± .28	3.33± .30	-9.51	.00
	F(p)	.75(.47)	.82(.44)		
Decision maker at home	Father	2.91± .33	3.26± .30 ab	-4.63	.00
	Mother	2.74± .29	3.09± .39 a	-2.79	.00
	Couple agreement	2.85± .31	3.35± .32 b	-11.86	.00
	Others	2.89± .30	3.17± .36 ab	-2.50	.02
	F(p)	1.01(.39)	4.95(.00)		

<Table 5 Continued>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Boy	Girl	t	p
		M±SD	M±SD		
Level of harmony	much harmony	2.88± .31	3.31± .33	-10.84	.00
	Moderate	2.76± .29	3.21± .40	-6.53	.00
	Less harmony	2.97± .47	3.29± .33	-1.53	.15
	F(p)	2.83(.06)	1.62(.20)		
Frequency of hugging from father (/day)	None	2.84± .31	3.26± .35	-10.58	.00
	More than 1 times	2.91± .30	3.36± .31	-6.70	.00
	t(p)	-1.20(.23)	-1.89(.06)		
Frequency of hugging from mother (/day)	None	2.82± .31	3.24± .34	-9.46	.00
	More than 1 times	2.92± .31	3.35± .32	-8.24	.00
	t(p)	-1.85(.07)	-2.53(.01)		

Note. a, b: Duncan.

.04), 가정의 화목정도(F=7.28, p= .00), 어머니의 포옹횟수에(t=-2.41, p= .02)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은 학교 급, 학교유형, 종교유무, 성격, 부모의 연령,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학력, 가족의 중대사 결정자, 부모의 포옹횟수에 따라 남학생,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가 있었다.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학교유형(t=2.43, p= .02), 아버지의 학력(F=3.97, p= .02)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고, 여학생은 학교 급(t=-4.21, p= .00), 학교유형(t=-3.12, p= .00), 아버지의 학력(F=3.78, p= .02), 가족의 중대사 결정자(F=4.95, p= .00), 어머니의 포옹횟수(t=-2.53, p= .01)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Table 5).

6.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과의 관계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은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014, p= .036)가 있었다(Table 6).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은 남녀 학생 모두 양성성이 높게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은 양성성이 여학생은 여성성이 높게 나온 Kim(2002)의 보고서나 Cho(2003)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중고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및 최근 많은 학교에서 양성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양성성의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앞으로 더 연구해 볼만한 과제라 하겠다.

남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비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t=-12.70, p= .00) 높게 나타난 것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E. M. (2003)과 Kim(2004)의 보고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4)와 Jo(2004)의 보고서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003)와 Kim(2002)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남학생이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여학생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교육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어머니가 40세 미만이거나 전업주부이고 가정의 중대사를 아버지가 결정하는 경우,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높았으며, 남녀 별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이는 남성

<Table 6> Correlations Among the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Egalitarianism

Gender	Boy	Girl	Total
	r(p)	r(p)	r(p)
Gender role identity	Boy .02(.09)	Girl .01(.04)	Total .04(.49)

중심적이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도덕윤리로 자리잡아온 부모의 의식이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학교급에 따른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여학생보다 더 빨리 완성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부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와 고졸인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학력과 성역할 정체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Cho (200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성역할 정체감이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교육적 경험에 의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한 것으로 생각되나 비교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없어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과제이다. 가정의 화목정도에 따른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매우 화목하거나 매우 화목하지 못하다고 한 경우에 보통이라고 한 경우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정의 분위기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의 포용횟수에 따른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부모가 매일 1회 이상 안아주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역할 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은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시키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가정에 보내거나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학교급에 따른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와 여러 선행연구(Lee, 2004; Sim, 2005)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교육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의식이 더 많이 축적되고 시야가 확대된 결과로 여겨진다.

학교 유형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을 비교한 결과 여학교 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공학 여학생이 공학 여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다는 선행연구들(Kim, 2002; Lee, 2004; Lee, 2005)과 일관되는 것으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았고,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거나 대졸이상인 경우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이 높다는 Kim, M. H. (2005)의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아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과제이다.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매일 1회 이상 안아주는 학생과 가족의 중대사 결정시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아,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가정의 학생과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은 학생이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행동이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학생에 있어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학교급별로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한 Lee(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학생들은 양성성이 높은 경우에 양성평등의식도 높아짐을 나타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여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U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76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일반적 특성, 양성평등의식,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은 전체적으로 남학생 3.30점, 여학생 3.25점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는 없었다.
2. 남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은 전체적으로 남학생 2.86점, 여학생 3.29점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2.70, p=.00$). 하위 영역별로는 가정생활($t=-11.48, p=.00$), 학교생활($t=-10.48, p=.00$), 사회생활($t=-10.78, p=.00$), 직업생활($t=-13.06, p=.00$)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로 높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은 고등학교($t=2.74, p=.00$), 남녀공학($t=-8.56, p=.00$), 종교가 없고($t=2.67, p=.00$), 어머니

가 40세 미만($t = .02, p = .00$), 고졸($t = 2.53, p = .01$), 전업주부($t = 2.74, p = .01$), 아버지가 가족 중대사를 결정하는 경우($t = 3.60, p = .00$)에 남녀 간에 유의한 차가 있었다.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학교 급($t = -3.19, p = .00$), 어머니의 포용횟수($t = -2.28, p = .02$)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고, 여학생은 종교유무($t = -2.24, p = .03$), 어머니의 직업($F = 3.59, p = .02$), 아버지 학력($F = 3.20, p = .04$), 어머니 학력($F = 3.24, p = .04$), 가정의 화목정도($F = 7.28, p = .00$), 어머니의 포용횟수에($t = -2.41, p = .02$)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은 학교 급, 학교유형, 종교유무, 부모연령, 아버지 직업, 부모의 학력, 가족의 중대사 결정자, 부모의 포용횟수에 따라 남학생, 여학생 별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학교유형($t = .02, p = .00$), 아버지 학력($F = 3.97, p = .02$)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 급($t = -4.21, p = .00$), 학교유형($t = -3.12, p = .00$), 아버지 학력($F = 3.78, p = .02$), 가족의 중대사 결정자($F = 4.95, p = .00$), 어머니의 포용횟수($t = -2.53,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5.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 정체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1, p = .04$).

본 연구를 통해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여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제공과 가정에서부터 양성의 조화로움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의 사회적 교육 실시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 Cho, Y. M. (2003). *A study on sex role identity and gender egalitarianism of high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the school trac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Jang, S. A. (2002). *An effect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role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 jou University, Suwon.
- Jo, G.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attitude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Kim, E. J. (2003). *The changes in gender-egalitarianism after sexuality edu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Comm Health Nurs*, 14(4), 1-9.
- Kim, E. M. (2003). *Effect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on girl's high school student's sex role identity and sex role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 Kim, H. O. (2002). *A study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gender role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J. H. (2005). *Effect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ex role identity and sex role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Chungju.
- Kim, J. S. (2004). *Middle school student's concepts of gender equality and occupational preference tend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eon University, Suncheon.
- Kim, M. H. (2005). *A study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Chongju.
- Kim, Y. H., Lee, S. Y., & Kim, H. Y. (2002). *Development of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Lee, D. H. (2004). *A study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gender role identity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Lee, M. J. (2005).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ness and behavior concerning gender equality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m 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Gumi.

Sim, Y. L. (2005). *An analysis on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m 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Gumi.

Song, H. (2005). *A study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Abstract -

Gender Role Identity and Egalitarianism Consciousness among Adolescents

Kim, Young Sook* · Jeong, Bok Rae**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gender role identity and egalitarianism consciousness among adolescents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37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U City. Tools used were the Korean Sexual Role Identity (Kim, J. H., 2005) and the Gender Egalitarianism Consciousness among Adolescents (Kim, 2002).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for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gender role identity. Boys' gender role identity was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grade ($t=-3.19$, $p=.00$), frequency of mother's hugging ($t=-2.28$, $p=.02$) and girls' according to religion ($t=-2.24$, $p=.03$), mother's job ($F=3.59$, $p=.02$), father's education level ($F=3.20$, $p=.04$), mother's education level ($F=3.24$, $p=.04$), family harmony ($F=7.28$, $p=.00$), and frequency of mother's hugging ($t=-2.41$, $p=.0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egalitarianism consciousness according to gender ($t=-12.70$, $p=.00$). Boys' egalitarianism consciousness was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type ($t=.02$, $p=.00$) and father's education level ($F=4.97$, $p=.02$), and girls' according to school grade ($t=-4.21$, $p=.00$), school type ($t=-3.12$, $p=.00$), father's level of education ($F=3.78$, $p=.02$), decision maker of important domestic matter ($F=4.95$, $p=.00$) and frequency of mother's hugging ($t=2.53$, $p=.01$). In Girls, sexual role identity and gender egalitarianism consciousnes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r=.01$, $p=.04$). **Conclusion:** Through the study, it was found that boys' concern for sexual equality of was remarkably lower than gir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ffer curriculums for boys and to start social education for parents.

Key words : Adolescent, Gender Role Identity, Gender Egalitarianism

* Health Teacher, School Nurse, Ulsan Information Communication High School.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